



연꽃 세상 축제는 시작됐다.

이 땅을 가득 채운 연꽃들의 함성 그소리 없는 주악은 인간 세상을 향해 탐욕도 내려놓고 고통도 떨쳐 버리라고 가르친다.

연꽃은 주장자 내리 치는 선지식의 기상으로 피어나 오도승을 토해 낸다.

귀 있는 자들여라, 삼매에서 깨어나 소리 없이 토해내는 무정 설법을.

연꽃의 개안(開眼)은 깨침이다. 무명중생의 이교목욕을 위한 깨침의 메시지다.

청아한 향기 세상을 덮어 중생계는 또 한번 조용히 연꽃을 들어 보아서는 영산의 화상이다.

누가 미소지를 것인가.

가섭존자처럼 빙그레.

임연태 기자

연꽃의 계절, 축제는 시작됐다

연꽃 축제 해마다 늘어 10곳 이상

전국의 연못과 연 밭이 설레고 있다. 짙푸른 잎과 줄기 사이 사이로 연꽃의 만발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연꽃의 수련은 이미 양증맞게 눈을 뜨고 7월의 햇살을 머금으며 드높은 향기를 뿌려대고 있다.

연꽃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바쁘고 축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도 연 밭의 푸르른 설레를 닮아 있다. 올해를 연꽃 축제가 열리는 곳은 10곳이 넘는다. 6월 말에 시작되는 연꽃 축제는 8월 말, 혹은 9월 말까지 계속된다. 해마다 늘어나는 연꽃 축제, 바로 연꽃의 아름다움과 그윽한 가르침을 묵상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연꽃 축제는 백련과 황련, 청련, 홍련이 만발하는 연 밭이나 방죽에서 열리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수련을 수반에 담아 전시하며 각종 이벤트를 곁들이는 형식으로 열리기도 한다.

상록리조트 350종 선보이며 모종도 보급

천안 상록리조트가 마련하는 제1회 세계 연꽃 축제의 경우, 350종의 다양한 연꽃을 한자리에 감상하며 각종 이벤트에도 동참할 수 있는 대규모 잔치마당이다. 수려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50만평 규모의 대형 국민 레저 시설인 상록리조트는 1200개의 수반을 공원의 중심부에 집중 배치해 두고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백련과 홍련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인공 연못도 만들었다.

전시되는 연꽃은 우리나라 자생연꽃 36종을 비롯 인도, 일본 등에서 들여와 재배에 성공한 각종 수련들이다. 공주대학교 서승연(생물학과)교수와 차기천 목사들 기록과 공주 원로원의 원로 목사들이 재배했다. 이미 5월 초부터 수반에 모종을 식재해 정성스럽게 가꾸어 6월 중순을 넘기며 연꽃들이 만개했다.



임연태 기자 ylfilm@buddhapia.com



◇사진=부채완 기자

interview

상록리조트 김건희 사장



종교 초월 인간에 주는 교훈 무궁무진 종단협 공식후원, 법장스님 "성공기대"

레저 시설로서는 처음으로 연꽃을 주제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천안 상록리조트. 350종의 연꽃을 1200개의 수반에 담아 전시하는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는 직원들은 날마다 맑은 목욕을 할 정도다. 식재한 연꽃의 발육 상태 점검에서 수반의 배치, 각종 행사 준비와 홍보 등 산더미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내면서도 직원들은 늘 연꽃 같은 웃음이다.

상록리조트 김건희 사장은 "처음에는 우리 시설의 홍보와 연꽃의 수질 정화 기능 등 환경교육 차원에서 기획했는데 축제를 준비하면서 연꽃이 종교를 초월해 인간에게 주는 교훈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연꽃 축제가 환경교육과 깨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연꽃 축제를 기획하면서 최근 3개월 동안 그의 머리속에는 온통 연꽃에 대한 생각뿐이라고 한다. "연꽃 축제로 인해 우리 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 준비 사항을 체크한다"는 것.

김 사장은 "올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부대행사를 대폭 늘리고 야생화전시회 등도 추가해 축제 규모를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불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축제를 만들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6월 19일 오후 1시 김 사장은 불교종단협의회 상임 이사회에서 이번 축제를 설명했다. 종단협은 축제를 공식 후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방문, 축제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법장스님도 "좋은 축제를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보람도 있을 것"이라 격려하며 축제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약속 했다.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연꽃축제, 하루에 다 갈수는 없을까? 현대불교신문사가 3곳의 연꽃 축제를 하루에 기행 하는 테마 기행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스님의 법문이 함께 하는 연꽃 축제 기행, 올 여름 불자님의 신심에 연꽃향기를 가득 채워 드립 것입니다.

기행코스

김제 청운사
연 밭 6천 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차 시음 및 구매

아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 밭과 주지 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상록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및 연꽃 모종 구입

기행일시및인원

7월 12일(토) 오전6시~오후8시, 선착순 200명
7월 19일(토) 오전6시~오후8시, 선착순 200명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 포함)

참가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구)→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립니다)→좌석배정- 당일 오전 6시까지 조계사 앞 집결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질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나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할 정심, 건강현유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각기 질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